

무안군, 위험농로 대대적 정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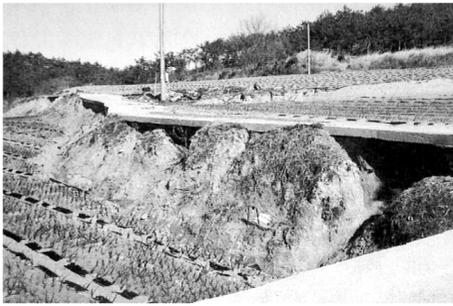
낡고 비좁아 농기계 운행 불안 2016년까지 118곳 보수키로

무안군이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조성된 낡은 농업용 도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동안 농로가 낡고 비좁아 사고 위험이 컸고, 대형 농기계가 이동할 수 없는 등 불편이 컸다.

무안군은 22일 “오는 2016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 위험 농로 일제정비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안전농로 구축사업을 3개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1차년도인 올해 예산에 54억을 확보해 118건의 시설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무안군은 노후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역개발종합 대책의 하나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한다. 군 관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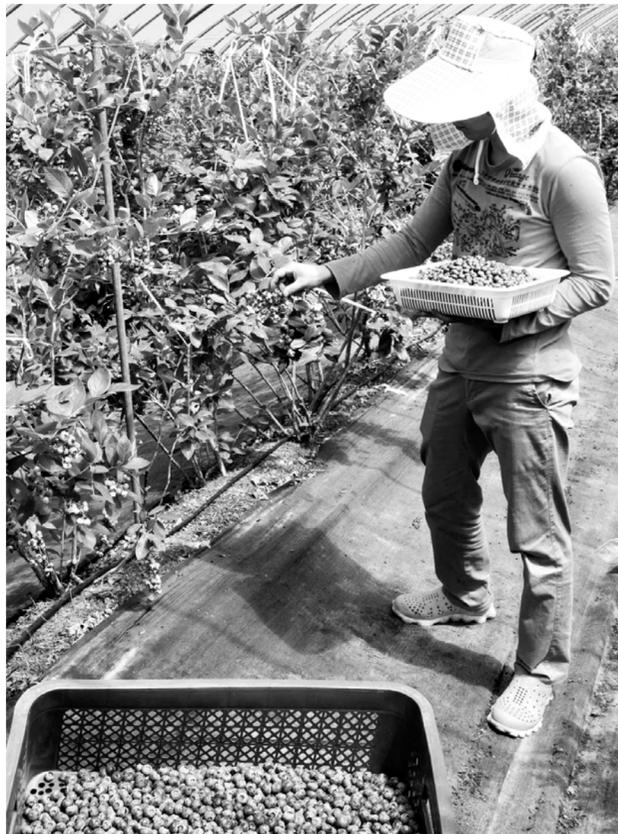
토양이 유실되고 파손돼 농기계 이동이 어려운 무안군 해례면 송석리 송계마을(왼쪽)과 만풍리 진목마을 농로.

이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농로가 낡았고, 콘크리트 포장 폭이 좁아 불편했다. 또 농로 비탈면 또한 유실된 곳이 많고, 가장자리 일부 구간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농민이 불안해했다.

대형화된 농기계 및 농산물 수송차량 통행시 안전사고도 염려돼 우회 통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른 군민의 통행불편에 민원도 잇따랐다.

무안읍 이장단 문봉식(60) 단장은 “수

십 년 전에 농로길이 만들어져 위험한데다 농기계는 크고, 길은 좁아 농사짓는데 힘들었다”면서 “군에서 농로길 정비공사에 들어가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담양 블루베리 수확 한창
담양군 월산면 시설하우스에서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이다. 하우스 블루베리는 재배기간이 노지보다 짧아 수확이 빠르고 시세가 높은 편으로, 현재 1kg당 4만원에 납품되고 있다. <담양군 제공>

곡성멜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기차타고 멜론마을’

달콤한 곡성 멜론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

곡성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 주식회사(대표 이선재)는 22일 “곡성멜론 ‘기차타고 멜론마을’이 각종 심사 및 절차를 거쳐, 특허청이 승인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44-0000246호)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지리적 단체표장 브랜드의 경우, 지역의 향토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인 만큼 단순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라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기대된다.

곡성멜론 ‘기차타고 멜론마을’은 곡성멜론 주식회사 통합 선별장(APC)에서 최첨단 비파괴 당도측정 선별라인을 통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및 전국 대형 백화점 납품,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국내외에 명실상부한 명품 멜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한민국 대표농장 ‘스타 팜(Star Farm)’에 선정, 농업축산식품부 농·공·상 융합형중소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R&D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건전 수협 육성, 최선 다하겠습니다”

문기봉 고흥수협 신임 상임이사

“조합원과 더불어 건전조합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선임된 고흥군 수협 문기봉(56·사진) 제3대 상임이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을 가진 수협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수협으로 육성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수협



의 모든 힘을 모으고, 조합원 모두가 행복한 수협을 만들겠다”면서 “문턱을 낮추고, 조합원의 요구를 귀담아 듣겠다”고 덧붙였다.

보성 출신인 문이사는 수협은행에서 전남금융 본부장, 마계팅 본부장, 경영지원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전북 소식

전주권 통합 생활권 구축 본격 추진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일자리·교육 등 공동 추진

전주를 중심으로 한 5개 시·군을 함께 묶어 발전시키는 ‘중추도시 생활권’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22일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5대 전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중추도시 생활권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3월 이들 5개 시·군 단체인 ‘중추도시 생활권’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발전 계획은 크게 5가지 핵심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익산 KTX역 중심의 방사형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5개 도시의 동서남북·순환도로를 연계해 지역 간 접근성

을 확보, 기초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주·완주 혁신도시-익산 식품클러스터-김제 민간육종단지지를 연결하는 농생명·식품산업 삼각 벨트 조성 및 탄소소재 활용한 부품소재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인재양성, 전통문화 중심의 한(韓)문화 수도 육성, 마을 단위의 광역복지센터 구축 등도 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들 시·군은 용역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간추리고 8월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장명균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생활권이 비슷한 5개 시·군이 상상·협력한다면 해당 시·군은 물론 전북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이들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고창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저렴·신선 농산물 판매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 하나로 마트에 지난 21일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이 문을 열었다. <사진> ‘로컬 푸드’는 소비자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해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유덕근 조합장은 “로컬 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확대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의 수확과 포장, 가격 결정, 매장내 진열, 재고관리 등을 농업인이 직접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만 출하할 수 있다.

고창농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로컬 푸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에 이어 매장 운영 방법, 선진지 견학 등을 교육했다.

유덕근 조합장은 “로컬 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확대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윤형명기자 cy0370@

골프, 등산, 술.... 이제 걱정 끝!!! 지친 당신에게 권합니다.

출시에정

제품명 : 간면애 식품의유형 : 다류역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 황칠추출물(100%)
제조원 : 왕칠다남(주) 판매원 : 왕칠나라유통 전남 정읍군 정읍읍 해당리 651-3 고객센터 : 061664-5788 부장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품, 판매처는 고객센터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고객센터 061 864 5788
www.hcnara.co.kr